

高句麗 古墳壁畫에 表現된 點紋樣 服飾의 染色 研究

양 경 애

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A Study on the Dyeing Method of the Dot-Patterned Costumes on the Mural Paintings of Goguryeo

Kyung-Ae Y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 Cheong University
(2004. 4. 20 투고)

ABSTRACT

Research into the ancient dyeing and weaving culture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costume. Due to the absence of the originals reflecting ancient costume cultures,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what the dyeing and weaving culture was like in ancient times. Because of limited visual materials available from the wall paintings of ancient tombs, studies conducted so far concerning the costume culture for the Goguryeo have focused on visual elements such as shape, structure, and type. As a result, research into ancient Korean dyeing and weaving cultures hasn't been properly made. Thanks to the presence of both some dyeing fabric originals from Goguryeo's neighboring countries and some visual materials like the wall paintings of the Goguryeo, it may be possible to obtain some clues to the dyeing and weaving culture. The dotted pattern costumes were selected such as Muyongchong, No. 1 Jangcheon Tomb, Gakjeochong, Samsilchong, Ssangyeongchong, Susanri Tomb. According to a book titled 'Hanwon', the Goguryeo people manufactured fabrics in such a way that resist-dyed spots produced elaborate patterns over the purple fabric. It can be safely said that such dot patterns were produced by means of dyeing rather than weaving, because identical patterns aren't well produced by means of painting and embroidery. Considering Goguryeo's natural features, the dot patterns mentioned in historical literatures are thought to have been produced using animal's skin. However, there is highest possibility that the dot patterns were produced using tie-resist dyeing or wax-resist dyeing techniques. With respect to the dyeing and weaving culture for the Goguryeo, one must refer to neighboring countries' dyeing and weaving environments, given that the Goguryeo had engaged substantial cultural exchanges with China.

Key words : dot-patterned(점문양), mural paintings(고분벽화), Goguryeo(고구려),
dyeing and weaving culture(염직문화), tie-resist dyeing(교힐), wax-resist dyeing(납힐)

I. 序論

한 시대에 유행한 직물문양은 당대인들의 기호 및 그 당시의 染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服飾文化의 일부인 染色과 織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구려 복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古墳壁畫에 표현된 시각자료를 통해 복식의 형태와 구조, 종류 등에 대한 특징을 밝히는 것이었으며, 염색과 직조에 관한 것은 회화자료의 한 계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대 복식에 대한 중요한 자료인 고분벽화 복식은 당시의 염색 기술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 없이 현대인의 관점과 감각으로 해석하고 재현함으로써當時의 복식문화를 오히려 왜곡한 부분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징적인 고구려 옷¹⁾으로 여러 차례 재현이 이루어진 點紋樣 복식이다.²⁾

본고에서는 집안지역의 삼실총, 각저총, 장천 1호분, 무용총과 평양·안악지역의 수산리 무덤, 쌍영총, 안악 2호분 등에 보이는 점문양 복식의 염직방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점문양은 고구려인이 선호했던 문양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집안과 평양·안악지역의 고분벽화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염직 환경을 밝혀 줄 구체적인 실물자료가 거의 없어 인접 국가들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자료는 고구려와 염직 기술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3세기에서 7세기 것이 위주이다. 아울러 일본 자료는 주로 泰良 正倉院에 남아 있는 8세기경의 실물자료와 문헌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 각 국에서 선호했던 염직물의 종류와 염직기술의 교류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고구려인이 선호한 심미적 태도와 염직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복식 고증과 재현에 타당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본고의 목적이이다.

II. 古代中國과 日本의 染織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점문양은 중국과의 복식 문화 교류관계를 참고하여 漢代부터 唐代까지의 염

직 환경을 고찰하려 한다. 또 고구려가 일본의 염직 문화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실에 의존하여 일본에 있는 실물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고구려 염직 물에 대한 자료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의 실물자료와 문헌자료, 대외 문화교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추론하고자 한다.

1. 古代中國의 染織

직물에 표현된 문양은 그리기, 자수, 염색, 직조에 의한 방법과 사슴이나 표범 가죽처럼 소재 자체의 문양 효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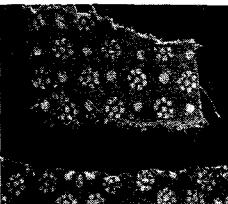
『唐六典』에 의하면 고대 중국 염색은 주로 초목의 잎, 줄기, 뿌리, 껍질 등을 사용했으며, 광물 안료는 대부분 국부적 착색에 이용했다고 한다.³⁾ 周代의 귀족들 복식에는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 그림을 그렸고, 특히 왕과 신하들의 祭祀服飾에는 章紋을 표현하고자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았다⁴⁾. 秦漢 시기에는 낭만적이며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動物雲氣紋이 유행했으며, 곡률이 큰 이러한 문양은 직조보다는 자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그림 1). 魏晉 시기에는 散点式의 小團花紋이 출현하여 유행하였다(그림 2). 唐나라의 경우는 산점식 소단화문이 지속적으로 유행함과 함께 각종 財相華, 花鳥紋 등이 함께 유행하였다.



<그림 1> 1972년

湖南長沙馬王堆 1号

西漢墓出土 紅絹地長壽絲



<그림 2> 19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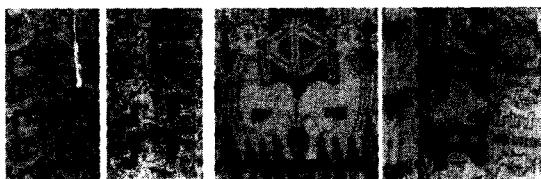
新疆于闐屋于來克古城遺址

出土 北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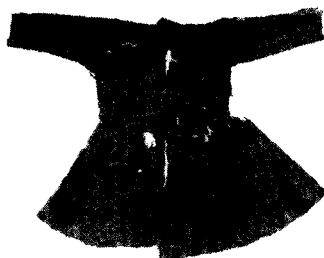
散雜花紋印花毛織品

그리기와 자수 방법으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과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은 경우 문양의 곡률이 크고 자유롭다는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며, 점문양 같은 단순 반복의 경우는 드물다.

직조에 의한 직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명칭은 대개 직물 표면의 정교함, 거칠음, 가볍고 얇음, 세밀함, 흰 정도 등에 따라 구별했다. 칼그렌(Bernhard Karlgren)은 『說文』등의 옛 기록에 근거하여 각종 견직의 명칭을 모두 15종이라고 논술하였고, 『續漢志』에는 絹·錦·綺·羅·縠·繪 등의 6가지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⁵⁾ 이 가운데 色絲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직물은 錦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漢과 魏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한 錦의 문양은 <그림 3>과 같은 게 일반적이며 옷을 만들 경우 <그림 4>처럼 세로방향의 줄무늬 느낌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3> 漢代에서 魏晉南北朝 및 隋代의 錦織物



<그림 4> 漢代對襟錦袍

西漢 시기 織物의 문양표현에 凸板 顏料捺印과 彩繪를 결합한 공예를 함으로써 그전까지의 刺繡와 紋錦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공예에 대해서는 漢代의 문헌기록에 반영되지 않고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직물도 발견되지 않다가 위진 시기에 이르러서야 繩이라는 직물이 출현하여 중국의 印花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후대에 힐은 인화 직물의 총칭으로 쓰이게 되었다.⁶⁾

고대 繩染은 防染印花를 총칭한 것이며 紋繩(撮繩/Tie dyeing), 蠟繩(Wax-resist dyeing), 夾繩(Clamp-resist dyeing), 灰繩(Ash-resist dyeing)의 네 가지 기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⁷⁾ 교힐은 직물을 문양에 따라 실, 노끈 등으로 묶어서 염색이 되지 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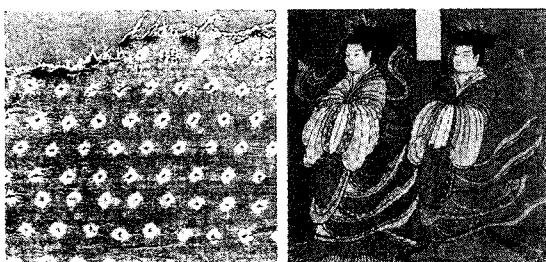
부분을 방염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약 3~4세기인 十六國 시기에 등장하였고 위진시기에는 初興期라 부를 정도로 대유행하였다⁸⁾. 紹絲와 繼絲를 문양에 따라 부분 부분을 실, 노끈 등으로 묶어서 염색하여 직물을 제작하는 이캇(ikat)도 교힐의 범주에 들 수 있다.⁹⁾ 납힐은 뜨거운 납을 직물 표면에 그려 납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에 염색이 되게 하는 방법이며 秦漢시기에 시작되었다.¹⁰⁾

협힐은 직물을 규칙적으로 접은 후 조각된 판을 직물의 앞뒤에 고정시킨 후 구멍으로 염료를 주입하여 염색한다. 따라서 대칭 무늬가 나타나며 직물에 접은 선의 흔적이 명백히 보이는 게 특징이다. 협힐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달라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풍은 협힐의 시작을 당나라 玄宗(712~756 A.D) 때 발명되어 唐宋代에 널리 유행한 기법으로 보았다.¹¹⁾ 宋代의 『事物紀原』에 의하면 협힐이 秦漢 시대에 시작되었고 陳나라와 梁나라 때에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었다고 한다. 周迅도 협힐 기법이 秦漢시기에 출현하여 魏晉南北朝 시대에 보편화되었으며 그 실물은 新疆吐魯番阿斯塔那 北朝墓에서 발견된 바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隋唐에 이르러서는 부녀자들이 夾繩을 하여 巾과 衣裙을 만들어 입었고 얇고 비치는 紗羅에 한 협힐을 여름옷으로 애용했다고 한다. 五代馬缟의 『中華古今注』에는 수나라 大業年間 隋煬帝가工匠에게 명하여 대량으로 五色夾繩花羅裙을 만들도록 하여 궁녀와 命婦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또 송나라 王讌의 『唐語林』에도 당나라 玄宗 때 궁녀 柳婕妤의 妹가 夾染방법으로 염색한 직물을 황후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姚汝能의 『安祿山事迹』에도 唐玄宗이 夾繩羅를 안록산에게 하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²⁾

灰繩은 일칼리 합유 물질을 방염제로 사용하여 염색한 것으로 가장 이른 시기를 아직까지는 唐代로 본다. 이상과 같은 모든 기법의 염색직물은 결국은 염색하지 않으려는 부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염색이 되지 않게 하여 문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방염 기법이다.

<그림 5>와 같이 위진시기의 교힐 직물은 복조 여인들이 입은 복식의 문양과 일치하며, <그림 6>의 7세기 경 당나라 여인의 披帛에 표현된 문양 또한 교힐로 보인다. 물론 凸板에 납을 묻혀 찍어 점문양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남힐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힐의 경우 점문양을 표현하는데 있어 교힐보다 훨씬 공정이 복잡하고, 또 남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염색해야 하므로 염료에 대한 온도 제약을 받는다. 즉 사용하는 염료는 쪽이나 紅花와 같이 냉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약되므로 점문양은 교힐에 의한 표현으로 추론된다.



<그림 5> ①1967년 新疆吐魯番 阿斯塔那北區39号墓 出土
西涼 方紋絞織綢
②山西大同北魏司馬金龍墓 朱漆彩繪屏風 模寫圖



<그림 6> 新疆吐魯番阿斯塔那 唐墓出土

2. 古代 日本의 染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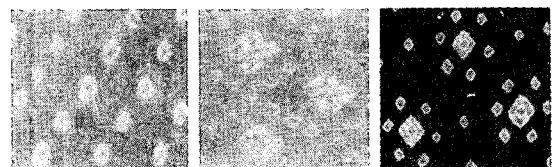
고대 일본의 세 가지 주요한 염색기법으로는 絞織(こうけち), 蠟織(ろうけち), 夾織(きょううけち)을 들 수 있다. 교힐은 이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남힐이나 협힐 기법보다 앞서 나타났으리라 추정하며 염색물의 정교한 맛은 덜하다.

남힐의 경우는 고대 일본에서는 판에 남을 문혀 찍는 방법이 붓을 사용하여 남을 문혀 그려 넣는 방법보다 더 우세했다. 정창원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을 문혀 찍었을 스템프의 재질에 대해서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나무처럼 조각하기 쉬운 재료

가 사용되었을 것이며 뚜렷한 윤곽선을 얻기 위해서는 금속재료도 쓰였으리라 추정된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한 조각의 스템프를 조각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 더 큰 도안을 위해서는 여러 조각의 스템프를 각기 조각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힐의 단점은 피염물 크기가 커질 경우 표현에 있어 여러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색상을 차례로 사용할 경우 밀바탕 색이 짙어지고 칙칙해지므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으며, 또한 스템프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도안을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협힐은 판에 원하는 디자인을 조각한 후 주로 얇은 직물을 두 번이나 네 번씩 의도한 대로 접어 넣고 판을 조여 물들인다. 대칭적인 구도가 표현되며 얇은 직물을 사용할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협힐은 세 가지 염색 기법 가운데 제일 늦게 발달한 듯하며 8세기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색상을 사용 할 수 있고 또한 큰 크기의 디자인을 표현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정창원에 전해오는 所藏物 가운데 8세기경의 교힐에는 <그림 7>과 같이 콩을 넣어 문양을 표현하거나 교힐을 한 후에 금이나 은안료를 사용하여 석물문양을 더 그려놓은 예가 있다. 이러한 교힐은 끈이나 의



① 緑地目交絞織綢 ② 茶地目交櫻花文絞織綢 ③ 赤地七曜文絞織綢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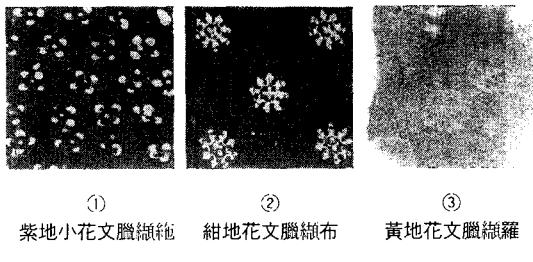
<그림 7> 散點式花紋 絞織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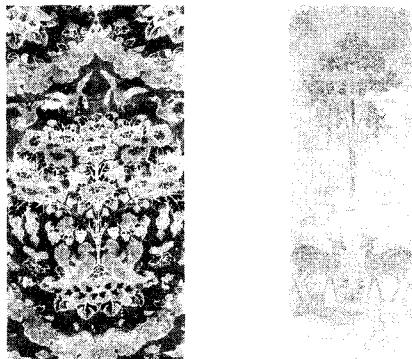
<그림 8> 絞織絶帶 와 淺綠地目交絞織綢로 만든 옷

복 등 생활용품에 적극 활용된 듯하다.<그림 8>

납힐은 <그림 9>처럼 純·麻·羅 직물에 보라·노랑·파랑 등의 다양한 색채로 散點式花紋이 표현되어 있다. 또 협힐도 <그림 10>처럼 8세기에 크게 선호되었던 선명하고 큰 크기의 실물자료들이 있다.



<그림 9> 散點式花紋 腊織



<그림 10> 夾織

일본의 이러한 헬 유품 중에는 보물을 포장한 高麗의 蠟織이란 직물도 있다. 이때의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므로 고구려에 납힐로 염색하는 염색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품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도 일본의 염직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⁶⁾ 즉, 『日本書紀』에는 백제왕이 일본에 의복 바느질을 하는 여자(縫衣工)를 보내 바느질하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일본의 오오진왕(應神王) 37년에는 구례하도리(吳織), 아나하도리(穴織)가 도래했고, 유루략구왕(雄略王) 12년에는 아야하도리(漢織)가 일본에 들어가서 직물을 제작하였는데 이들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며 綾·錦·羅 등을 제작한 직인들도 한반

도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이었다.¹⁷⁾

奈良 正倉院에 소장된 유물 가운데는 통일신라의 물품으로 보이는 것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7세기에서 8세기 통일신라로부터 다양한 염직물을 구입하였다.¹⁸⁾ 그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신라의 직물문화는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통일신라는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에서 직조하던 독특한 기법의 백금을 高麗白錦이라 칭하며 계속 생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의 염직 기술이 통일신라로 이어졌음을 암시한다. 특히 834년 흥덕왕의 복식금제에 헬염의 금지항목이 있어 당시까지 헬염이 애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정창원에 보존된 8세기경의 유물에 보이는 납힐이나 협힐 등의 방염기법이 헤이안시기(794-1185년)에 이르러 혹은 그보다도 더 일찍 중지된 듯하며 교힐만이 꾸준히 발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물과 문헌 기록을 통해 3-8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힐은 중국과 고구려, 일본에서 모두 선호된 염색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정창원에 소장된 직물을 고구려 고분벽화의 점문양 복식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들 꽃문양을 빠른 시간 내에 벽에 그린다면 단순화한 점문양으로 그렸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동그라미의 점문양 이외에도 마름모꼴이나 스페이드 같은 보다 정교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힐이 애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III. 高句麗 古墳壁畫에 表現된 服飾의 點紋樣 染色法

집안지역고분벽화 가운데 점문양이 표현된 벽화에는 삼실총, 각저총, 장천 1호분, 무용총 등이 있다. 특히 무덤의 남녀 주인공에서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남녀, 그리고 야외에서 놀이하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시중드는 사람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여러 상황에서 점문양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게 애용된 이들 점문양 복식은 당시

집안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직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안악지역에서는 수산리, 쌍영총, 안악 2호 분 등의 벽화에서 점문양 복식을 접할 수 있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계층 또한 무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시중들거나 뒤따르는 사람들의 옷으로 표현되어 있어 집안지역과 대조적이다(그림 11).

서 가라요(韓樣)의 금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일본 錦部
련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일본적인 야마
도니시기(大和錦)를 제작하기에 이른다(그림 12).²¹⁾

<그림 13>과 같은 8세기경의 锦은 <그림 11-④>의
장천 1호분 문지기 복식에서 볼 수 있는 마름모꼴 문
양과 유사하여 눈길을 끈다. 이 직물은 작은 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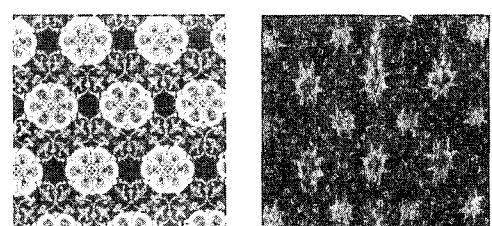
<그림 11> 집안·평양지역 고분벽화의 점문양 복식

양 지역간에 시기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선호한 직물과 의복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이들 양지역의 복식문화가 상당히 달랐음을
암시한다. 즉 고구려 복식에 나타나는 地域差²⁰⁾를 점
문양 복식의 착용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紫地纈紋한 직물을 제조한 사실은 『翰苑』에 기록되어 있다. 이 직물은 문양부분을 실로 묶어
서 紫色 染液에 담구어 염색하여 방염된 부분이 문양
으로 나타나는 문양 염직물로 자지힐문의 염색 문양은
고분벽화에 표현된 점문양 복식을 통해서도 방증이 가
능하다. 물론 이러한 점문양은 염색기법 이외에 직조에
의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三國志』와 『周書』에는 锦
과 羅를 고구려 지배계층에서 사용하였음을 기록했다.
또 樂浪의 漢墓에서 발견된 木牘에 '三匹縑' 등의 글자가
발견됨으로써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중국의 다양한 견
직물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
화의 점문양 복식은 착용자의 신분과 착용상황, 직물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羅직물 문양은 아니다.

錦은 직조에 의한 대표적인 문양 직물이며 특히 삼
국시대에 크게 발전한 經錦은 일본에 전파되었고 고대
한국의 锦을 가라니시기(韓錦)라 불렀다. 또 일본의 유
루락구왕(雄略王 7년/ 463년) 시대에는 백제에서 定安
郡라고 하는 직인이 도일하여 도원(河內-桃原) 지역에

으로 둘러쳐진 마름모꼴 모양에 안에 딱딱한 형태
의 전통적인 직조방식에 따라 만든 花紋이 있다.
바탕은 붉은 보라색, 어떤 곳은 흰색과 옅은 연두색,
흰색과 분홍색 등으로 세 개의 그룹색이다. 이처럼
놀랍도록 문양의 유사점은 인정되지만 4~5세기에
유행된 고구려의 锦의 문양은 8세기경 일본에서 직
조된 锦의 문양보다는 오히려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北朝 시기의 문양과 흡사하여 줄무늬 효과
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高價의 锦을 피지 배
계층까지 착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분벽화
에 표현된 점문양은 직조에 의한 문양 표현보다는
염색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림 12> 일본에서 제작된 <그림 13> 赤紫地目交襯
한국고대국가 양식의 锦 (文文錦²²⁾)

일반적으로 그리기와 자수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

되는 문양을 표현하기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 또 사슴 가죽이나 표범 가죽 같은 소재 자체가 갖는 문양을 점문양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벽화에 표현된 점문양 복식은 착용자 신분과 역할, 복색과 형태, 좌장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재질이 가죽보다는 직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점문양 복식이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 지배계층에서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애용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 지배계층에서 주기적으로 행했던 대규모 사냥습속²³⁾이나 고대사회에서 남정의 예로 사슴 가죽을 사용한 예²⁴⁾, 사슴가죽 옷을 착용한 기록²⁵⁾, 그리고 무엇보다 가죽옷을 많이 입었던 지역적 특수성²⁶⁾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슴 가죽의 아름다운 반점을 흥내내어 그 문양을 교힐 기법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피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점문양을 애용했던 고구려인의 심미적 태도를 가정, 해 볼 수 있다.

김성희는 무용총 벽화 인물복식에 표현된 작은 점무늬를 직조가 아닌 印染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고구려 무용총 벽화 복식의 점문양 복식을 통해 당시에 인염 공예가 성행했다고 추정했다. 또 점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염직물의 제작 기법을 교힐이나 납힐이 아닌 협힐로 추론²⁷⁾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힐은 좌우로 대칭 되는 뚜렷한 무늬를 만드는 데 효과적인 염색방법으로 중간에 접은 선의 흔적이 명백히 나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점문양을 협힐로 보기는 어렵다. 즉, 당시 인접 국가들의 출토유물을 비교하고 문현적 자료를 참고한다면 협힐보다는 중국의 北朝墓에서 출토된 실물이 있는 魚子纈이나 魏晋 시기에 유행한 鹿胎斑과 더 유사하여 교힐이나 납힐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교힐은 특별한 도구 없이 다양한 문양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4세기 이후에는 교힐이 크게 성행하였다. 신강지역과 돈황석굴에서 발견되는 약 4~8 세기경의 교힐 직물은 교힐 기법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되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도연명이 지은 『搜神後記』에는 고대 교힐 기법인 鹿絞로 만든 의복에 대해 구체적 묘사가 있다. 녹교란 옛사람들이 “鹿胎”라 칭한 것이다. 沈從文은 이러한 녹태 문양에 흥색, 황색, 자색의 세

가지 색이 있으며 바탕색에 白色의 點으로 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이같은 녹태힐을 사슴의 斑點 문양을 내는 교힐로 보는 사람도 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녹태힐이 단지 세 가지 색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더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었다. 즉 隋唐 시기에는 염직업의 발전에 힘입어 교힐 직물이 매우 성행하였고, 『新唐書·輿服志』에 의하면 민간 부녀들은 힐염의 직물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²⁸⁾ 또 힐염이 다양해지면서 魚子纈, 檳榔纈, 瑪瑙纈, 鹿胎纈, 山水纈, 醉眼纈 등 문양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등장할 정도로 대유행하였다. 이러한 염색기법의 유행과 문양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고분벽화 복식에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점문양은 고구려에서 발달한 힐염 가운데에서도 교힐로 추정한다.

IV. 結論

본고에서는 고구려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보이는 점문양 복식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염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분벽화에 묘사된 문양은 벽화에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안료 및 문양을 표현하는 데 따른 시간적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당시의 직물 문양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구려의 점문양 직물의 실물자료가 없어 중국과 일본의 염직물 가운데 고분벽화 복식의 점문양에 상응할 수 있는 散點式 花紋의 유물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고대 동아시아의 직물 문양은 주로 그리기(繪), 자수, 염색(蠟纈, 絞纈, 夾纈, 灰纈) 직조, 천연가죽의 문양 등으로 나타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의 점문양은 힐염 가운데서도 교힐에 의한 표현으로 추론해 보았다. 직물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繪와 대칭적인 문양 표현에 적합한 협힐은 고분벽화에서 보는 점문양 같은 동일한 문양의 단순 반복되는 표현에는 적절한 기법이 아니다. 또 납힐은 점문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교힐에 비해 더 까다롭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하며 염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구려의 피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애용된 염직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교할 기법은 문양을 표현하는 염색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기술로서 남힐이나 협힐 기법보다 앞서 나타났으리라 추정된다. 근년에 후지노끼(藤の木) 고분이 발굴될 때 붉은색 염료로 쓰인 紅花의 花粉이 검출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의 염색기술이 6~7세기에는 일본에 도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창원에 남아 있는 다양한 힐염 직물을 통해 역으로 고구려의 염직공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힐염 직물의 실물 자료는 중국의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며, 일본은 8세기경이 집중적으로 많다. 고구려는 실물자료는 없지만 회화자료인 4~5세기 고분벽화를 통해 당시의 염직물을 살펴 볼 수 있어 당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 간 염직문화의 교류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1) 전호태 (2001).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 p. 54.
- 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2).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80, p. 282, p. 287, pp. 291-294.
한복문화학회도록 (1999). '99 한국의상전-우리옷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사단법인 한복문화학회. 9월 28일~10월 3일 일민미술관.
- 3) 趙豐 (1992). 絲綢藝術史. 杭州 : 浙江美術學院出版社, p. 23.
- 4) 周迅 · 高春明 (1996).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 : 重慶出版社, p. 474.
- 5) 錢存訓 저 · 金允子 역 (1993). 中國古代書史. 서울 : 동문선문예신서11, pp. 135~136.
- 6) 鄭巨欣, 朱淳 (1996). 染織藝術. 中國美術學院出版社, p. 15.
- 7) 趙豐 (1999). 織綉珍品. 香港: 藝紗堂 · 服飾出版, pp. 348~349.
- 8) 朱新予 主編 (1992). 中國絲綢史. 上海: 紡織工業出版社, p. 128.
- 9) 민길자 (1988). 세계의 직물. 서울: 한림원, p. 69.
- 10) 周迅 · 高春明 (1996).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 重慶出版社, p. 478.
- 11) 趙豐 (1999). 織綉珍品. 香港: 藝紗堂 · 服飾出版, p. 348.
- 12) 周迅 · 高春明 (1996).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 重慶出版社, p. 477.
- 13) 松本包夫 (昭和 59年).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 京都: 紫紅社, pp. 171-172.
平成十一年 正倉院展 (1999). 奈良 : 奈良國立博物館.
- 14) 吉岡幸雄 (2003). 日本の色辭典. 京都: 紫紅社, p. 21.
- 15) 松本包夫 (昭和 59年).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京都: 紫紅社, p. 6.
- 16) 杉本正年 저 · 문광희 역 (1995). 동양복장사논고-고대 편-. 서울: 경춘사, p. 361.
- 17) 민길자 (1988). 세계의 직물. 서울: 한림원, p. 67, p. 71, p. 102.
- 18) 이춘계 (1995).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서울: 일신사, pp. 113~120.
- 19) 김부식, 이병도 역주 (1994). 삼국사기(하). 서울: 을유문화사, pp. 168~171.
- 20) 이선재 · 양경애 (1995). 고구려 시대 남자 頭衣 고찰. 박물관지, 제4호,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pp. 15~32.
- 21) 민길자 (1988). 세계의 직물. 서울: 한림원, pp. 74~82.
- 22) 松本包夫 (昭和 59年).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 京都: 紫紅社, pp. 83-90.
平成十一年 正倉院展 (1999).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 23) 이옥 (1984). 고구려 미족형성과 사회. 서울: 교보문고, p. 166.
경철화 (1991). 고구려 벽화 중의 사회 · 경제-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서울: 대북연구소 출판부, p. 130.
- 24) 최무장 (1995). 고구려 고고학2. 서울: 민음사, pp. 77 9~782.
- 25) 심연우, 민길자 감수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한림원, pp. 68~72.
<韓非子>에 요임금의 복장에 대해 겨울에는 사슴가죽, 여름에는 갈의라고 기록되어 있다
- 26) 박선희 (2002). 한국고대복식-그 원형과 정체. 서울: 지식산업사, pp. 69~74.
- 27) 김성희, 조효순 (1999). 중국 唐代 이전의 印染 기술을 통해 본 고구려 印染物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 2(3), pp. 30~36.
- 28) 鄭巨欣, 朱淳 (1996). 染織藝術. 中國美術學院出版社, pp. 27~28.